

# 민족형성이론에 근거한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의 분쟁발생에 관한연구

- 압하지야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중심으로 -

곽예슬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I. 서론	1. 분쟁지역의 역사
II. 이론적 분석의 틀	2. 민족갈등원인분석
1. 원초주의	IV. 분쟁지역 비교분석
2. 도구주의	V. 결론
3. 구성주의	참고문헌
III. 분쟁지역의 민족갈등원인분석	

## 초 록

세르비아 남부지역에 위치한 코소보가 2008년 자치독립을 선언한지 4년만인 지난 2012년 9월 10일 국제조중기구(ISG)의 코소보감독종료를 선언으로 완전한 주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코소보의 주권획득은 전 세계 소수민족의 독립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만연하다. 코소보 독립에 대해 러시아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나 코소보 문제를 통해 잃어버린 유럽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러시아 주변의 분리주의 움직임에 대한 명분을 얻는 일거양득의 노림수일 것이라는 견해가 제일 그럴듯해 보인다. 소연방의 해체와 그에 따른 동·서대결구도의 붕괴는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및 지역들에서 사회·정치적 변혁을 추동 하였다. 그 동안 이념을 바탕으로 한 냉전적 억압체제아래 매몰되어 있었던 다양한 사회문화적 갈등들, 즉 인종, 언어, 종교, 지역 등을 매개로 하는 민족분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었다.<sup>1)</sup> 포스트소비에트(Post-soviet)공간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분쟁들 및 민족갈등들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인 북카프카즈와 더불어,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으로 구성된 남카프카즈 지역과 흑해연안이 가장 첨예하게 표출된 대표적인 포스트소비에트 분쟁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가장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분쟁지역인 압하지야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분리주의에 대해 구성주의적 이론의 틀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비교해보고자 한다.

1) 박정호, 2006, 자카프카지에 지역분쟁의 정치·경제적 요인 분석-그루지야와 아브하지야 분쟁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1권 2호(참고)

## I. 서론

구소연방체제에서 분리된 지금의 분쟁동결지역들은 인종, 민족 등의 감정적 요소들 보다는 러시아의 편의성에 의해 분할된 것이고, 따라서 연방해체 이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민족분쟁이 생긴 것이다.<sup>2)</sup>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냉전의 주축을 담당하던 소연방의 해체로 21세기는 분쟁과 테러보다는 좀 더 평화적인 정보화, 세계화 사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두의 바람과는 달리 서로의 이념과 패권으로 점철된 한 단계 진보된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남코카서스지역에서의 국익과 패권경쟁을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sup>3)</sup>'이라고 일컫는 학자들이 많다. 러시아, 미국, 중국 등 강국들이 이 지역에서 이러한 패권다툼을 하는 궁극적 이유는 지전략적·지경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으로 누가 헤게모니를 잡는가에 따라 소련 붕괴 후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유라시아 또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질서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sup>4)</sup>

그러한 의미에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4대 분쟁지역인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나고르노-카라바흐, 트란스니스트리아지역은 과거 구소련의 인위적인 민족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어 비교해볼만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이 지역이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아닐지라도 러시아의 특수한 지정학적 공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이 속해 있는 국가의 지배 엘리트는 수십 년 동안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진행되어 온 러시아화에 맞서 갈수록 더 민족적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다.<sup>5)</sup>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분쟁지역을 놓고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이들의 분리운동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하는 가운데, 다양한 이론적 틀을 대입해 분리운동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분쟁지역이 가지고 있는 분리운동의 경향이 민족주의의 형성에 기인한 원인으로 출발하여 그 중에서도 구성주의적 이론의 분석 틀을 세우고 4개의 분쟁지역들 중에서 압하지야와 나고르노-카라바흐 2개 지역의 분쟁상황을 분석하고 비교해보려고 한다. 이 두 지역을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분쟁지역들 중에서 선택한 이유는 4개의 분쟁지역들이 모두 공통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각자 가지고 있는 역사와 민족관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하지야와 나고르노-카라바흐 두 개의 지역이 공통적인 특징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민족주의는 사회적 통합과 함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하고, 개인의 자유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억압하기도 하고, 폭력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타자에 대한 관용성을 가지기도 하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기도 하지만 전통의 특수성을 띠기도 한다. 실제로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민족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가는 그 국가가 처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인 만큼 이는 경험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런 점에서 우선 민족의 구성이나 민족주의의 형성에 관해 제기된 여러 이론들을 본원주의, 도구주의, 구성주의로 나누고 대략적으로 이론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그 중 필자가 이 논문에서 이론의 틀로 삼고자 하는 구성주의 이론 그 중에서도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이론에 근거하여 소연방해체 이후 더욱

2) 엄구호, 2007, 남코카서스의 '신거대게임'과 그루지야의 친서구 정체성, (중소연구 113호), p. 127

3) Alexander Cooley, 2012, Great Games, Local Rules: The New Great Power Contest in Central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4) 엄구호, op. cit., p. 127

5) Z.브레진스키, 2003, 『거대한 체스판 - 21세기 미국의 세계 전략과 유라시아』, 김명섭 옮김, 삼인. p. 123

극명하게 나타나 아직까지 미해결지역으로 남아있는 분쟁지역들 중 압하지야와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의 민족의 형성과 지역의 독특성을 알아보고 이 두 지역의 민족형성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II. 이론적 분석의 틀

### 1. 원초주의(primordialism)

민족주의 형성이론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크게 원초주의, 도구주의, 구성주의로 나누어볼 수 있겠다.<sup>6)</sup> 그 중 민족주의에 관해 가장 먼저 시도된 이론화인 원초주의(primordialism)는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특성에 따라 민족을 규정하려는 것이었다. 이 이론에서는 혈통이나 역사적 문화적 유산과 같이 개인들이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요인들에 근거하여 민족의 범주를 규정한다. 혈통과 같이 생물학적인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종교나 언어, 역사와 같은 문화적 요인인데, 이 이론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유산과 문화적 요인을 개인에게 '주어진 것(the given)'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sup>7)</sup> 이런 입장에서 제시된 민족주의를 흔히 인종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라고 부르는데, 민족의 구성은 주관적 의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민족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객관적인 실체를 지닌 것으로 주장된다. 따라서 민족의 본원적 요소를 지니지 못한 개인이 민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된다. 그것은 개인의 의지나 특별한 사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단지 그가 어떤 민족의 일원으로 탄생함으로써 그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 2. 도구주의(instrumentalism)

'근대주의적' 해석은 이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서 있는 이론이다. 근대주의적 이론은 도구주의와 구성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도구주의의 대표적 학자는 겔너(Ernest Gellner)로 이데올로기로만 취급되던 민족주의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민족주의의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민족이란 까마득한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최근의, 즉 근대의 역사적 산물이다.<sup>8)</sup> 즉 산업화나 자본주의의 성립과 함께 대중교육을 포함한 근대문화가 발전하며 폭넓은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이를 기반으로 민족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sup>9)</sup> 따라서 민족은 최근 2세기 미만의 근대적인 산물이 된다. 또 민족이 자연스럽게 민족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민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즉 사회공학에 의해 지배계층에 의해 발명된 것이라는 것이다.<sup>10)</sup>

6) 민족형성의 이론을 원초주의, 도구주의, 구성주의, 포스트모더니즘으로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반적 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7) 김동노, 2012, 『민족주의의 다원화와 이념 갈등』, (동방학지) 제159집, p. 373

8) 강철구, 2008, 민족주의를 보는 관점들,

『강철구의 '세계사 다시 읽기: 민족주의의 근대주의적 해석 비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1128122039&Section=0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1128122039&Section=04) 검색일: 2012.11.25.)

9) John A.Hall, 1998, The State of the Nation: Ernest Gellner and the Theory of Nation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27

10) 강철구, 2008, op, cit., (기사재인용)

[표 1] 민족성 이해를 위한 3가지 기본적 이론

Perspective	Description
<b>Primordialist Theories</b>	민족은 출생에 고정되어있다고 본다. 민족정체성은 집단이나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근원적 유대에 기초한다.
<b>Instrumental Theories</b>	사람들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기억에 기초한 이 민족성은 권력집단이나 자신의 실용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성되고 이용된 것이다.
<b>Constructivist Theories</b>	민족 정체성은 사람들이 뭔가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특정 사회와 역사적 상황에서 뭔가를 '구성하는'것이다. 따라서 유동적이며, 주관적이다.

출처: Enoch Wan and Mark Vanderwerf, 2009,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ethnicity and national identity and related missiological studies, Published in [www.GlobalMissiology.org](http://www.GlobalMissiology.org), Vol 3, No 6, pp. 7

### 3. 구성주의(Constructivism)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구성주의도 민족주의의 '근대주의적' 해석의 한 부분에 속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구주의적 이론보다 더 근대적이라고 생각한다. 구성주의의 다양한 기준을 요약해보면, 민족집단(ethnic group)은 유동적이고, 내생적이며 사회, 경제 정치적 일련의 과정의 집합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sup>11)</sup> 뭔가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필자는 민족형성이론을 3가지 이론 즉, 원초주의, 도구주의, 구성주의 이렇게 3가지로 분류했지만 학자들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민족성과 민족주의를 분류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구성주의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확대 해석하기로 한다.<sup>12)</sup>

구성주의 이론가들은 공통적으로 민족주의는 혈통과 전통, 공유된 역사나 언어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사회구조적 조건이 만족되면 저절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민족주의는 현대의 인위적 산물이라고 말한다. 구성주의 이론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2개의 이론을 꼽는다면 구성주의 중에서도 특히 가장 고전적인 이론을 발전시킨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와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의 '만들어진 전통(The Invention of Tradition)', 이다.<sup>13)</sup> 아마도 이 앤더슨이 정의내린 '민족'이라는 개념은 근대이론가들 사이에서

11) Elliott D.Green, 2006, Redefining Ethnicity, Development Studies Institute London School of Economics, p. 6

12) Enoch Wan and Mark Vanderwerf, 2009,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ethnicity and national identity and related missiological studies, Published in [www.GlobalMissiology.org](http://www.GlobalMissiology.org), Vol 3, No 6, pp. 17-18  
이 논문에서는 Enoch Wan과 Mark Vanderwerf의 주장처럼 베네딕트 앤더슨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분류한 바와 같이 확대하지 않고, 앤더슨의 이론을 구성주의라고 하겠다.

13) A.Voronkova, Conflicts in the South Caucasus through the lens of symbolic approaches to nationalist mobilization, Moscow State University, Faculty of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Center for Strategic and Political Studies, (Published in: Naumkin, V. (ed.) Nepriznannye Gosudarstva Ushnogo Kavkaza), p. 2

가장 많이 인용된 정의가 아닐까 생각된다.<sup>14)</sup>

이 논문에서는 구성주의를 대표하는 이론가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이론을 분석의 틀로 잡고자 한다. 앤더슨의 이론은 근대이론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면서도 민족을 '실재'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원초주의자들로부터 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sup>15)</sup>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회과학은 결론이 나지 않는 이론(inconclusive)이므로 그러한 비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앤더슨의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민족주의를 적절하게 설명할 이론이 마르크스주의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자 1976년 톰 네언(Tom Nairn)은 민족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대실패를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앤더슨은 네언의 비판을 마르크스주의뿐 아니라 다른 모든 정치 전통들(앤더슨이 보기에 민족주의를 적절하게 설명할 이론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로 확장하려는 의도에서 《상상의 공동체》를 썼다고 주장한다.<sup>16)</sup>

그는 민족주의란 이전에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스스로를 공동체로 '상상'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진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상상"이란 말은 민족을 구성하는 인민의 대부분은 서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나 그 민족을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7)</sup> 어떤 학자들은 이를 두고 민족운동으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허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켜야만 했느냐며 반박할지도 모르겠다.(신용하,2006,p.38) 하지만 여기에서의 상상은 그러한 허구나 가짜가 아니라 머리속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실체로서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앤더슨은 설명한다.<sup>18)</sup>

그리고 서로 흩어져 살고 있는 이들을 상상을 통해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쇄 자본주의(print capitalism)라고 주장한다.<sup>19)</sup> 즉, 교육받은 소수의 엘리트집단이나 한정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의사소통의 환경을 구축하려는 자본주의(혹은 자본가)적인 의도가 인쇄라는 기술적 요인과 결합됨으로써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쇄매체를 통해 같은 언어로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소설을 읽게 되었고, 이들 사이에 '깊은 수평적 동료의식(deep horizontal comradeship)'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동료애는 서로 다른 피부색깔, 나이, 성별 등의 차이를 넘어 공동체의 미덕을 가져오고, 각 개인들은 이 공동체 속에서 개별적으로 존재의 유한함을 넘어 거대한 공동체의 영원성을 획득함으로써 완전한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앤더슨은 이와 같이 민족주의를 사회적 행위자들의 의도된 결과로 인식한 것이다.

국가주의의 입장에서 보는 민족은 정치적 공동체이다. 국가가 민족주의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양하며, 어떤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는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국가와 민족의 일치 여부이다. 개괄적으로 볼 때 국가와 민족이 일치하는 경우 국가는 민족주의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게 된다. 이 때 통합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엘리트 집단이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일어난다. 어떠한 경우에

14) Enoch Wan and Mark Vanderwerf, 2009, op, cit., p. 18

15) 신용하, 2006, '민족'의 사회학적 설명과 '상상의 공동체론' 비판

16) Davidson Neil, 2008, 'Reimagined Communities'. (International Socialism 117 (winter), 번역, 정중수, 현대 진보사상 조류: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비평

17) 고부용, 2005, 균열된 상상의 공동체: 베네딕트 앤더슨의 민족과 민족주의 이론, 비평과 이론, 제 10권 1호, pp. 66

18) 고부용, 2005, op, cit., p. 66

19) 앤더슨은 인쇄자본주의의 발달은 실재(reality)를 재현하여 주는 소설이나 신문의 대량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의 발달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민족주의는 정치적 동원<sup>20)</sup>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그 효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때로는 민족주의가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전쟁을 위한 동원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전쟁은 대규모의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국가가 강압력에 의존하여 이러한 동원을 시도하지만 강제력만으로는 동원의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동원의 정당화를 위한 이념적 자원이 필요하게 된다. 전쟁이 국가 간의 경쟁인 만큼 이때 가장 적절한 이념적 도구는 자연스레 민족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국가와 민족의 단위가 일치하면 민족주의가 사회적 통제와 자원 동원의 수단이 되는 반면, 이 둘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민족주의는 주로 민족 내의 통일을 지향하게 된다. 민족과 국가를 일치시키는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통합의 힘으로 작용했고 혹은 최소한 통일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적극 활용되었다. 국가주의의 성격을 가진 민족주의는 이와 같이 다양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 되었는데,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우선 민족주의가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만큼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영토성(territoriality)이 민족주의의 기반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영토성이란 현대 국민국가가 영토성에 기반하여 국가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성은 민족주의가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민족주의가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를 획득해야만 하지만 그 시초에서는 정치적 엘리트 중심으로 민족주의가 주도되며, 때로는 국민의 통합을 위해 문화적 엘리트가 이들의 후원세력으로 민족정신을 높이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대중의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요될 수 있으며, 민족주의는 폭력성을 띠며 개인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 민족주의가 민족통합이념이 아닌 엘리트 중심의 지배계급의 이념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엘리트 중심의 지배계급의 특징을 앤더슨은 ‘관주도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sup>21)</sup>라고 말하며, 러시아제국 짜르왕정시대의 ‘러시아인화(Czarist Russification)’를 관주도 민족주의의 한 예로 말하고 있다. 이질적인 짜르의 백성들을 ‘러시아인화’하는 일은 하나는 오래되고 다른 하나는 아주 새로운 두 반대되는 정치질서를 급격하고 또 의식적으로 융합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러시아제국의 전제주의정책인 ‘러시아인화’에 대항한 비러시아인의 혁명은 폴란드, 라트비아 그리고 조지아 등 비러시아인 지역에서 실제로 가장 극렬했다고 설명한다.<sup>22)</sup> ‘관주도 민족주의’는 시작에서부터 제국적 왕조의 이해관계의 보존에 깊이 관련된 의식적이고 자기 보존적인 정책으로 이러한 유형의 민족주의의 한 가지 지속적인 특징은 그것이 국가에서 나오고 무엇보다 국기 이익을 우선하는 관주도적인 것이라고 말한다.<sup>23)</sup>

이상 앞에서 살펴본 구성주의 이론을 대표하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에서 소개된 민족형성이론을 바탕으로 먼저 간략하게 분쟁의 역사를 살펴본 다음 3가지 관점에서 압하지야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분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0) Enoch Wan and Mark Vanderwerf, 2009, op, cit., p.18

21) Anderson, B.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 London, p. 86  
윤형숙 역,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p. 114

22) Anderson, B. 1991, op, cit., p. 88  
윤형숙 역, 2002, op, cit., p. 116

23) Anderson, B. 1991, op, cit., p. 159  
윤형숙 역, 2002, op, cit., p. 198

### Ⅲ. 분쟁지역의 민족갈등원인분석

#### 1. 분쟁지역의 역사

##### (1) 압하지야(Abkhazia)

조지아와 압하지야의 역사발전과정을 보면, 몇 개의 공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조지아가 19세기 러시아 제국에 병합된 이후 러시아의 지방조직으로 전락했을 때, 압하지야 공국은 1864년까지 차츠바 공후의 통치하에 실질적으로 정치적 주권을 보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1864년 제정 러시아에 의해 주권을 상실한 압하지야는 그 이후 주권회복을 위한 전쟁과 반 식민주의 투쟁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압하스 민족은 제정 러시아 정부로부터 강제이주정책에 따른 인종적 대 참사를 당하게 되었다. 187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진행된 조지아인들의 압하지야 지역으로의 광범위한 이주정책이 양측 간 심각한 사회·경제적 갈등을 촉발시켰으며, 1917년 10월부터 1921년 3월까지 제정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조지아(당시 그루지야 공화국)와 심각한 갈등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1921년 조지아와 압하지야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일원이 되자, 같은 소비에트 연방국의 일원으로서 조지아는 압하지야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소연방 형성기인 1922년부터 1931년까지 압하지야는 연방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자치권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조지아 출신 스탈린에 의해 1931년 압하지야는 압하지야 연방공화국에서 자치공화국으로 정치·행정적 지위가 격하되었고, 조지아에 일방적으로 합병되었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그루지야화’정책은 압하지야의 민족정체성을 괴멸시키려는 스탈린의 의도적인 차별 및 탄압이 이루어진 시기로 압하지야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민족적 특성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스탈린 시기 잠잠했던 압하지야의 투쟁이 최초로 표면화된 시기는 1978년 ‘압하지야 분리주의 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지아에서 분리하여 차라리 소연방으로 편입하겠다는 압하지야의 의지를 나타낸 사건이다. 그 당시 소연방은 이를 거부했지만 그 대신 유화정책으로 압하지야에 대규모 경제지원과 문화적 자율권을 약속했다. 이 같은 소련의 정책이 조지아의 반감까지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sup>24)</sup>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되자 압하지야는 해빙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압하지야 연방국가’ 창설방안을 조지아측에 제안하지만 조지아의 세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 정부는 단일한 주권국가인 조지아에선 그 어떠한 자치조직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천명하며 압하지야를 침공하였고 내전으로 발전하게 된다. 1992-1993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압하지야인 전체 인구의 4%인 약 15,000명이 사망하게 되고, 여러 고문서, 박물관, 문화적 기념비들 및 사회경제적 기반시설들이 파괴되었다. 조지아인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압하지야에 있는 소수의 압하지야 시민들은 만장일치로 1931-1954년, 1992-1993년의 전쟁은 조지아정부의 인종말살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25)</sup> 이후 몇 차례의 내전과 휴전을 반복하며 내전이 국제적인 차원으로 비화되었고, UN과 러시아가 중재하며 1994년 휴전협정에 양측에 조인하게 된다. 하지만 2003년 장미혁명으로 세바르드나제가 축출되고, 친미적 성향이 뚜렷한 사카시빌리(saakashvili) 대통령의

24) 박정호, op. cit., pp. 304-307 (참고하여 정리)

25) Paula Garb, 2009, The view from Abkhazia of South Ossetia Ablaze, Central Asian Survey, Vol. 28, No. 2, p. 238

등장 이후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에 처해지게 되었다. 2008년 8월 8일 조지아의 남오세티야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와 조지아의 무력충돌인 ‘5일간의 전쟁’을 보는 압하지야의 시각은 압하지야가 1992년 조지아로부터 침공 받았던 때와 그 목적이 거의 흡사하다고 보고 있다.<sup>26)</sup>

## (2)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카프카스지역의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역사적 배경을 보려면 2세기를 거슬러 19세기 초 짜르시대까지 올라가야 한다. 투르크계 아제르바이잔인들이 18세기에 세운 카라바흐 칸국(Karabakh Khanate)이 러시아에 합병되었을 때(1805년 5월 14일) 아르메니아 인구는 전체의 1/5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미미했다. 1804-1813년과 1826-1828 러시아-페르시아 간 전쟁이 끝난 후 4만 명 이상의 아르메니아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주해 왔고, 84,600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오스만 제국에서 카라바흐를 포함한 카프카스지방으로 대거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1828년, 러시아 황제의 칙령에 따라 아르메니아 자구(Armenian Oblast)가 아제르바이잔 점령지 내의 칸국(Yerevan Khanate와 Nakhichevan Khanate)에 세워지게 되었다.<sup>27)</sup> 이는 오스만 제국에 맞서 일종의 완충지를 만들겠다는 목적에서 실행된 것으로서,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지역을 여러 지역으로 분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러시아 군대는 카프카스의 북쪽으로 진군해 나갔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 샤밀(Shamil)이 이끄는 여러 무슬림 민족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러시아는 카프카스 남북부 지역 모두를 지배할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 남카프카스는 아르메니아인의 정착과 기독교 세력의 전파를 통해 이루려 했고, 북카프카스는 카자크인을 비롯하여 다른 러시아 민족들을 카프카스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북카프카스 지방의 민중봉기는 여러 해 동안 그칠 줄 몰랐으나, 결국에는 샤밀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이후 남카프카스 지역의 무슬림 공동체 안에서는 내부분열이 심화되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카프카스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 지역 내의 무슬림들은 엄청난 영토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러시아 짜르의 통치 기간 동안 아르메니아인들과 아제르인들 사이에 여러 차례의 혈전이 벌어지게 된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1918-1920년 사이 각각 독립했고, 1920년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고 난 뒤 이 두 공화국에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하여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가 소련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sup>28)</sup> 1921년 7월 5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코카서스국(Caucbureau)은 기독교도인 아르메니아와 이슬람교도인 아제르바이잔인들간의 평화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 아제르바이잔연방에 귀속시키고 카라바흐에 자치권을 부여해주게 된다. 이 당시 스탈린의 분할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양도된 나고르노-카라바흐가 오늘날까지 양국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1922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은 아르메니아 및 조지아와 함께 트랜스코카서스 연방공화국(Transcaucasian Soviet Federated Republic)의 구성원으로 소연방에 가입했으며, 1936년에는 각각 소연방의 구성원이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1940-1980년에는 양국 모두 예외 주시하고 별다른 분쟁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sup>29)</sup>

26) Paula Garb. op. cit., p. 238

27) Namig H.Aliyev, 2009, International Law Issues in Nagorno-Karabakh Conflict, Publishing House "Universal" Tbilisi, pp. 7-12

28) Namig H.Aliyev, op.cit., pp. 7-12

29) 장병욱, 2008,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원인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pp.302-306



1988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뜨’ 개혁, 개방정책이 등장했던 고르바초프 시기에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사이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분쟁은 나고르노-카라바흐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이 경제적 문화적 차별에 항거하여 아제르바이잔 정권에 대한 폭동을 일으키면서 표면화되었다.<sup>30)</sup> 이러한 양 국민 간의 역사적인 반감은 종교·문화적 차이에 기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자치를 요구했고 그 요구가 묵살되자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의 분리를 주장, 결국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소연방이 붕괴됨으로써 분쟁은 점점 전면전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 1988년 2월, 그곳에 사는 아르메니아인에 의해 거행된 일련의 파업과 시위에 뒤이어 시작되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1988년 이래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월 하반기 동안 100만명에 이르는 아르메니아인들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아르메니아에 합병시키고자하는 시위를 벌였다. 2월 25일 나고르노-카라바흐 내에서 2명의 아제르인들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2월 28일, 29일 아제르바이잔의 슴가이트라는 도시에서 반아르메니아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 폭동으로 카르바흐 출신 아르메니아인들 100명이 살해되게 된다. 이 슴가이트 사건 이후 아르메니아에 거주하던 약 16만명의 아제르인들이 이주하였고, 30만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그들의 터전을 버리고 산을 넘어야 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는 비참한 상황에 빠진 아르메니아로부터 탈출 해 온 1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사회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1990년 1월 13-14일 추방되어 집이 없는 아제르 난민들에 의해 수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이 기간 동안 살해되고 부상당하게 된다. 1991년 9월 2일 나고르노-카라바흐 출신의 대의원들이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의 설립을 선포하게 된다.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카라바흐 자치권의 지위상태를 폐지하자, 12월에 그곳의 아르메니아인은 국민투표를 하였고 스스로 독립공화국임을 선포하였다. 1992년 초 3달 동안은 희생자의 숫자가 어마하게 커졌다. 무장한 아르메니아군이 아제르바이잔의 호드잘리(Khodzhaly)라는 마을의 주민 1,000여명을 학살하고 수천명이 부상당했으며 도시가 불타게되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러시아 군 병사들도 포함되었다. 1992년 5월 말까지 나고르노-카라바흐 전 지역이 아르메니아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6만명의 아제르바이잔인이 탈출하거나 추방당했다. 이 전투는 아제르바이잔의 자치 구역인 나히체반(Nakhichevan)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 때 터키가 이 분쟁에 관여했던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1993년 헤이다르 알리에프(Heidar Aliiev)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된다.

1994년이 시작될 무렵, 아르메니아군의 승리로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거의 20%가 아르메니아의 통치 하에 놓이게 되고 지금까지 소규모 국경 충돌을 보이며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미해결 분쟁지역으로 남아있다.<sup>31)</sup>

## 2. 민족갈등원인분석

왜 압하지야와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포스트소비에트 이후 이러한 분리운동 및 적잖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를 바탕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두 지역의 케이스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민족정체성은 지역 간 경계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즉, 제한된 것으로 상상된다고 본다.<sup>32)</sup>

30) 장병욱, 2007, 나-카 분쟁과 아제르-아르메니아 평화과정, 중동연구 제 26권 2호, pp. 278-282

31) 장병욱, op, cit., pp.285-287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민족적 충돌이 구체적으로 불어넣어진 시기는 1980년대 양 국가 모두 약 30,000명이상의 희생자를 내면서 표면화되었다. 분쟁의 주원인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두 국가 모두 이 지역의 영토를 본질적 중요성과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원초주의자(Pri-mordialist)들이 '영토의 주권성(Territorial Sovereignty)'에 대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역사적인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 주장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만약 민족 집단이 이 영토의 원시토착민일 경우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원초 주의적 이론의 핵심인 것이다. 이것은 압하지야 민족이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정치적 자치권을 가졌었다. 라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원초 주의적 이론을 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앤더슨은 영토적 소유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새롭게 정의되고 재구성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원초주의자들의 의견에 반박하고 나선다. 수세기동안의 증거나 영토적 주장의 증거로써 지도나 국경의 정의개념을 사용한다.<sup>33)</sup>

19세기 러시아 짜르정부는 의도적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분해서 서로 다른 민족들을 이 지역으로 이주시켜 정착시켰다. 러시아제국이 붕괴되었을 때, 19세기 러시아 제국으로의 합병 이후, 러시아제국정부는 의도적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 여러 지방으로 나누고 여러 민족을 이 지역에 통합시켰다. 그랬기 때문에 러시아제국이 붕괴했을 때, 이 지역엔 그 어떤 행정적인 경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소련으로부터 분리된 카프카스지역에서 민족과 국가건설과정을 복잡하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왼쪽지도에서는 나고르노 카라바흐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되어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오른쪽 지도에선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이 아르메니아군에 의해 점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국경의 변화



출처: <http://www.harpercollege.edu/mhealy/geg101i/renata/russialecture.htm>

32) Anderson, B. 1991, op, cit., p. 7

윤형숙 역, 2002, op, cit., p. 22

33) Melita Kuburas, 2011, 『Ethnic Conflict in Nagorno-Karabakh, University of Toronto, Review of European and Russian Affairs 6 (1), ISSN 1718-4835, p.53

흘어진 민족인 아르메니아, 분단된 민족 아제르바이잔<sup>34)</sup>이란 말은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영토분쟁으로 많은 유혈사태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두 민족의 운명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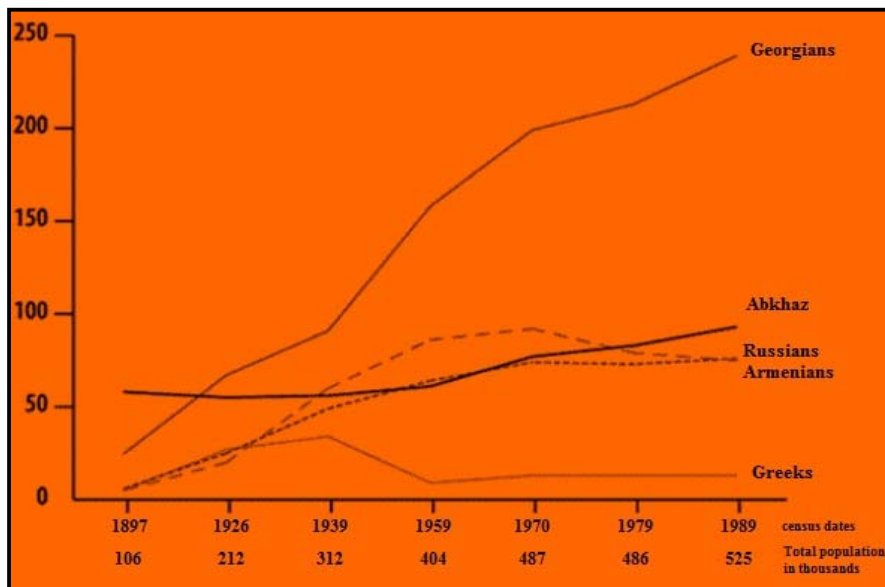
이렇게 분리된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에서 정치적 공백 기간 동안 결정적으로 민족과 국가건설에 실패했기 때문에 압하지야와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분리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랬기에 혁명 후인 1918-1921년 시기에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이 지역에 국가건설을 할 때에도 제국주의 선례로부터 통치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여 민주적인 체계나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은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다. 당시 조지아 멘세비키 정부의 지도자였던 노에 조르다니아(Noe Zhordania)는 국가적 차원의 테러나 문화동화(Cultural assimilation)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압하지야지역으로 조지아인과 밍그렐리아 소수민족을 카르트 벨리아인(Kartvelian)들을 대신하여 대거 이주시키게 된다. 단적인 예로 인구학적 변화를 예로 들 수가 있겠다. [표 1]과 [그림 1]과 같이 압하지야에서의 조지아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겠다.

[표 2] 압하지야의 인구학적 변화

Ethnicity	1897	1925	1939	1959	1970
Abkhazian	58,697	55,918	56,147	61,197	77,276
Georgian	<b>25,875</b>	<b>67,494</b>	<b>91,067</b>	<b>158,221</b>	<b>199,595</b>
Russian	5,135	20,456	60,210	86,715	92,889

Alexander Murinson, 2004, The secessions of Abkhazia and Nagorny Karabagh. The roots and patterns of development of post-Soviet micro secessions in Transcaucasia, Carfax Publishing,(Central Asian Survey, Vol. 23, No. 1, p. 18)

[그림 2] 1897-1989 압하지야의 인구학적 변화



출처: Jan CZ, Wikipedia

34) Svante E.Cornell,2001,Small Nations and Great Powers, A study of ethnonopolitical conflict in the Caucasus, Routledgecurzon, pp.20-23

둘째,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인쇄술의 발달이라고 주장한다.<sup>35)</sup> 인쇄자본주의(print-capitalism)가 근대 민족 형성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러시아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쇄자본주의로 인한 민족의 형성은 앤더슨이 예로 든 아메리카식 민족주의나 유럽의 대중적 민족주의와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거대한 영토와 그 주민들을 러시아인이라는 하나의 민족 집단으로 통합하기 위해 지배집단이었던 권력층이 자신의 언어를 버리고 피지배집단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를 그 공동체의 언어로 채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족주의이다.<sup>36)</sup>

제정 러시아 시대에는 러시아의 영토와 통치 대상인 백성이 하나의 언어나 문화로 통합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광대했다. 이 통치대상이 되는 제정 러시아에서 러시아어 사용 인구는 전체의 반이 채 되지 않았으며 통치 집단의 언어는 프랑스였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유럽의 대중적 민족주의적 영향을 받아 각 지역의 민족주의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치 집단은 궁정언어를 러시아어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지금까지 러시아어를 쓰지 않던 지역의 피통치 주민에게 교육을 통하여 러시아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

셋째, 러시아제국, 소련방 등 지배계층에 의해 의식적으로 발명된 관주도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의 특징을 가진다. 새로운 민족의 원칙과 오래된 왕조 원칙의 봉합인 관주도 민족주의는 다른 유럽 식민지에서의 동화정책(Russification)으로 부를 수 있는 현상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이념적 경향은 식민지 인종차별주의를 왕조의 정당성과 민족주의 공동체를 접합시키려 시도한 '제국'이라는 개념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sup>37)</sup>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불균등하게 발전되어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을 하는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침입을 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침입으로 민족주의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족주의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침투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앤더슨 이론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제국주의<sup>38)</sup> 정책이 분쟁의 원인변수 중 제일 중요한 사안으로 꼽을 수 있겠다.

다음의 사항은 러시아인들이 남코카서스 지역에 도착했을 때 따라야 하는 지침서이다.<sup>39)</sup>

코카서스에 도착하는 즉시 현지인들과의 교류에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른다.:

1. 이 지역에 대한 우리 러시아인들의 권력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금한다.
2. 상업적 관계를 수립하여 그들로 하여금 필요를 느끼도록 한다.
3. 코카서스의 다양한 민족 간에 불화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며 그들의 통합이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한다.
4. 기독교를 소개한다.
5. 터키와 페르시아와 연계할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막는다.

발견된 위의 지침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코카서스 지역의 민족들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35) Anderson B. op, cit., p 59-61

36) 고부웅, 2005, op, cit., 69-70

37) Anderson, B. 1991, op, cit., p. 150

윤형숙 역, 2002, op, cit., p. 187

38) 제국: 19세기 제국주의를 말하며, 러시아제국, 오스만투르크제국, 페르시아제국(사파비 왕조)의 패권다툼을 말함.

39) Svante E.Cornell, 2001, Small Nations and Great Powers, A study of ethonopolitical conflict in the Caucasus, Taylor & Francis e-Library, p16

대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문구라고 볼 수 있겠다.

압하지야는 카프카즈의 압하즈-압하지야인(Abkhaz-Abazinians), 우비흐(Ubyk-hs), 샵수기(Shapsugs)민족과 같이 자급자족하는 민족의 본거지였다.<sup>40)</sup>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19세기 러시아의 집단학살과 강제추방으로 인해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렸다. 19세기 초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어쩔 수없이 압하지야는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했고, 1864년 러시아군대에 의해 장악된 압하지야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추방정책이 시행되게 된다. 이때 시행된 대규모 추방으로 약 40만 명의 압하지야인들이 터키로 이주 당했으며, 남아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영지를 빼앗겨야했다. 1861년과 1865년 퇴거된 압하지야 지역으로 16,000명의 러시아 장교를 포함한 가족들이 이주해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제국은 조지아의 엘리트들을 이곳의 고위급 관리직에 등용하여 그들의 대리인 노릇을 하게했다. 이때부터 이주하기 시작한 조지아인들의 숫자는 1886년 4,600명에서 1895년 25,000명까지 증가하게 된다.<sup>41)</sup>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는 페르시아의 사파비왕조(Safavid)의 몰락이후,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제국과 오스만투르크제국이 패권다툼을 하였다. 1722년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당시 기독교신봉자였던 아르메니아인들은 이슬람화되지 않기 위해 역시 러시아제국에 보호요청을 하게 된다.<sup>42)</sup> 1813년 이란과 러시아제국의 카프카즈 영유권싸움의 결과 러시아제국이 승리하여 맺어진 굴리스탄조약(Treaty of Gulistan)의 결과 터키 동쪽지역에서 박해를 피해 수많은 아르메니아사람들이 러시아제국의 권고로 카라바흐 지역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했다. 1823년부터 1897년까지 카라바흐에서의 아제르인들의 인구가 5,370명에서 겨우 20,409명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아르메니아 인구는 30,850명에서 106,363명까지 증가하게 된다.

러시아제국은 자신들의 지배를 더 강화하기위해 이 지역의 서로 다른 인종들 간의 종교적 적개심을 이용하여 이간질하기 시작했다.<sup>43)</sup> 1905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의 결과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약 30,000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아제르-터키사람들에 의한 대학살의 희생자가 되었고, 이 같은 잔학행위는 러시아제국의 목인 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러시아제국에서부터 시작된 침입, 식민주의화로 인한 민족정책은 소비에트시대에서 그대로 답습되거나 오히려 능가하여 스탈린의 통치기인 1933년부터 1953년까지 광범위한 인종차별정책인 ‘반압하지야 정책’이 실시되었다. 압하지야 언어말살정책, 압하지야 학교폐쇄, 압하지야어로 된 인쇄물 출판금지가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스탈린의 대숙청시기인 1937-1938년도에는 압하지야의 문화인과 정치엘리트들이 대거 숙청되었다. 도미니크리벤(Dominic Lieven)과 아나톨리벤(Anatol Lieven)에 따르면, 이러한 제국주의적 침투로 인한 ‘문화적 멸종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의 압하지야인들의 조지아정부로부터의 언어, 교육시스템, 자주권보호에 대한 민족주의적 단결심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sup>44)</sup>

나고르노-카라바흐의 경우에도 볼셰비키들이 이 지역을 카프카즈지역에서 제국주의정책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볼셰비키는 1920년에 나고르노-카라바흐를 혁명의 성공에 참모역할을 한 아르메니아에 양도했었다. 하지만 1923년 다시 반복되어 나고르노-카라바흐는

40) 현승수, 2012, 『열린 민족, 닫혀진 국가: 소비에트 시기 남카프카스 3국의 형성과 발전』, [2012년 1차 HK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 국내학술회의] - 유라시아의 팽창과 저항 : 제국과 민족주의, pp. 1-2 (참고)

41) Alexander Murinson, op, cit., pp. 15-16  
‘이 때 이주한 조지아 고위 관리직들은 압하지야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카프카즈의 넓은 이곳 땅을 자신들이 왜 개척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고 전해진다.’

42) 그렇게 기독교국가인 러시아와 아르메니아의 친밀관계가 이때부터 성립된다고 본다.

43) Alexander Murinson, op, cit., p. 17

44) Alexander Murinson, op, cit., p. 20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자치주의 상태로 양도 되게 된다. 아제르바이잔 또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교육과 문화정책을 시작으로 통제하였고, 그 결과 아르메니아 학교들은 아제르바이잔 학교로 대체되었고 아르메니아 역사나 언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탄압의 결과로 1926년부터 매년 평균 2,000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 떠나게 된다.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민족정책을 두고 '문화적 대학살'이라고 말하며 '나히체반<sup>45)</sup>화(Nakhichevanization)'라고 주장했다.

또한 압하지야와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수직적(vertical)'인 종속의 관점이 아닌 '수평적(horizontal)'인 상태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늘날 주권(sovereignty)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자치권의 개념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sup>46)</sup> 분리운동에 관한 조지아와 압하지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의견대립은 좁혀질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보인다.

#### IV. 분쟁지역 비교분석

앞에서 이론으로 알아본 2개<sup>47)</sup>의 분쟁동결지역들은 구소련 해체의 과정에서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독립운동에 반하여 일어난 분쟁으로 큰 맥락에서 동일한 하나의 범주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들 분쟁동결지역들은 전부 과거 러시아제국, 소비에트연방 그리고 현재 러시아연방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지역들이다. 그렇기에 2개의 분쟁동결지역은 그들이 속한 국가와 민족 집단과의 양자관계가 아닌 아주 초기부터 3자 관계 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들 분쟁지역에 군사적·정치적·정신적·경제적·금융적 지원을 제공하는 결정적 역할자이다. 게다가 이들 지역에 대한 EU나 UN과 같은 기구로부터의 국제적 개입을 막고, 러시아가 가진 지위를 이용하여 이들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종종 국제사회에서 협상의 매커니즘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치외법권(extra territorial)을 근거로 자신의 시민들을 보호해야한다는 명목아래 이들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그 밖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개입하고 있다. 둘째, 정치적 관점에서 2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분쟁이며 압하지야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분쟁동결지역 모두 정치성(Political nature)을 내포하고 있다. 군사작전의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지만 러시아에 의한 분쟁지역들 내에서의 정치적 도구화(political-instrumentalization)현상은 자주, 현명하게 발생되고 있다.<sup>48)</sup> 셋째, 2개의 분쟁동결지역 모두 일관성 있는 국가건설프로젝트(state-building project)를 추구하는 사실상의(de facto)국가라는 점이다. 압하지야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모두 권위주의적이며, 군사적으로 무장화 되어있고, 인구의 대부분이 러시아 중심의 정보환경에 갇혀져있다. 그리고 부패, 마약밀매, 폭력, 정치경제범죄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넷째, 이들 지역들이 속해있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과 같이 빈곤하고 약한 국가로부터 경제적 자원과

45) 나히체반(Nakhichevan)은 아르메니아민족의 영토였으나 소연방의 인정으로 1924년 아제르바이잔에 귀속된 영토이다.

46) Svante E.Cornell, 2001, Small Nations and Great Powers, A study of ethnonopolitical conflict in the Caucasus, Routledgecurzon, p.29

47)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분쟁동결지역은 압하지야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이외에도 조지아의 남오세티야(South ossetia)와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가 있다.

48) Alexander Murinson, op, cit., p. 20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어 각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은 체제변화를 겪으면서 국내외교나 대외정책분야에서 상당한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더욱 서부국가들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 먼저 조지아는 2003년 장미혁명 이후 친미성향이 뚜렷한 사카시빌리 대통령의 집권으로 2012년 올해 10월 총선<sup>49)</sup>이 있기 전까지는 반·러, 친·미성향이 뚜렷했으며, 이번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EU와 NATO가입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sup>50)</sup> 아제르바이잔도 마찬가지로이다. 다른 구 소련국가들처럼 NATO나 EU가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2006년 기존 러시아경유가 아닌 러시아를 우회하는 가스관(대표적인 예 \_ BTC<sup>51)</sup>송유관)을 건설했으며, 러시아와 서부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 구소련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는 옛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각국과 카프카즈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위해 실용주의적 재제국화(Pragmatic reimperialization)<sup>52)</sup>정책의 일환으로 옛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 내에 친러 자치 지역을 암암리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 V. 결론

소비에트시절 스탈린은 민족 형성의 객관적 요소 중 '혈연의 공동', '정치의 공동', '역사의 공동'을 모두 이론적 틀에서 배제했고, 주관적 요소인 '민족의식'을 철저히 탄압했다. 그 결과 이 글에서 다루었던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에서 뚜렷하게 분출되는 지역갈등양상은 하나의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며, 현시적 폭력과 잠재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지아정부의 폭력적인 민족주의적 도발행위들은 포스트소비에트 기간 동안의 소수민족 집단들 사이의 과거 역사적인 슬픈 기억들을 되살아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전의 강제동화 정책과 소수민족 말살정책이 소수민족들로 하여금 오히려 강력한 민족 집단의 결함을 만들어낸 것이다.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민족과 지역에 따라 너무도 다양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정말로 어렵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구지 정의해보자면 "한 민족이 그들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민족국가의 성립과 그 국가의 발전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논문에서는 이론의 틀을 구성주의 이론 중 베테덕트 엔더슨의 이론 하나만으로 분석했지만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 형성되고 발전된 다양한 민족주의적 현상을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나 요인들로 설명하는 것은 분리주의를 예상하거나 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의 분리운동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지역과 민족에 따라 민족주의를 독자적 유형의 정립의 틀에서 유형화한 후에 이를 민족별, 지역별로 세분해서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

수세기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분쟁은 지역안

49) www.bbc.co.uk\_BBC NEWS, 2 Oct 2012, Georgia President Mikheil Saakashvili admits election loss (검색일: 2012.11.20.)

50) Article: Janusz Bugajski, 2012, Russia's Georgian Dream,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n Washington DC, Tabula Georgian Issue # 118

51) 아제르바이잔의 Baku, 조지아의 Tbilisi, 터키의 Ceyhan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가스 송유관

52) Janusz Bugajski, 2009, Russia's Pragmatic Reimperialization, Potomac Books, pp. 3-19

보에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리하여 또 다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2008년 남 오세티야 전쟁과 같이 무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지역분쟁 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 내부의 분리주의운동과 지역갈등은 대부분 다수와 소수 사이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소수가 다수 중심의 이익분배나 차별에 불만을 갖고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수의 양해와 소수의 수용을 전제로 한 갈등요인의 타결과 해소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sup>53)</sup> 그러기위해선 지역기구의 역할이 아주 크게 작용하는데, 러시아와 CIS국가들 간의 집단안보조약기구인 CSTO(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모두 가입되어 있었지만 러시아 해계모니주의로 인하여 주변국들의 역할이 유명 무실해지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탈퇴하게 되어 앞으로의 갈등 해결에 있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갈등의 골이 좁혀질 것 같지 않은 압하지야와 조지아의 관계는 조지아의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도 그대로 이어질 듯하다. 압하지야는 계속 줄어드는 압하지야인구와 그로인해 다방면으로 러시아 음악, 영화 등과 같은 문화에 의해 극히 소수만 사용하고 있는 압하지야어와 문화가 잠식<sup>54)</sup>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압하지야 자치공화국의 독립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 또한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다. 하지만 최근 2009년부터 2011년간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로 진행된 다자간 회의 중 2010년 12월 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OSCE 민스트 그룹 공동성명에 두 국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함께 회동한 사실은 앞으로 대화를 모색해 나가겠다는 양 국가의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미처 함께 분석하지 못한 조지아의 남오세티야와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은 앞으로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53) 이동윤, 김영일, 2010,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갈등관리: 아세안(ASEAN)의 지역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14 연구자료 10-50, pp. 20-28

54) Giorgio Comai, 6 November 2012, In Abkhazia, worried about the language law, Osservatorio Balcani e Caucaso.  
<http://www.balcanicaucaso.org/eng/Regions-and-countries/Abkhazia/In-Abkhazia-worried-about-the-language-law-124824> (검색일: 2012.11.25.)



## 참고문헌

- 고부응, 2005, *균열된 상상의 공동체: 베네딕트 앤더슨의 민족과 민족주의 이론, 비평과 이론*, 제 10권 1호, pp. 59-82
- 김동노, 2012, 『민족주의의 다원화와 이념 갈등』, (동방학지) 제159집, pp. 367-420
- 김태웅, 2009, 『러시아의 CIS지역 분쟁개입과 지역 안보 레짐의 발전』, (한국동북아논총) 제 51집
- 김혜진, 2009, 『러시아와 그루지야의 관계 -남오세티야 분쟁을 중심으로』, (슬라브학회) 제 25권 2호
- 박정호, 2006, 『자카프카지에 지역분쟁의 정치·경제적 요인 분석-그루지야와 아브하지야 분쟁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1권 2호
- 신용하, 2006, 『'민족'의 사회학적 설명과 '상상의 공동체론' 비판』, (한국사회학) 제 40집 1호, pp. 32-58
- 염구호, 2007, 『남코카서스의 '신거대게임'과 그루지야의 친서구 정체성』, (중소연구) 113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pp. 125-164
- 유승만, 2008, 『그루지야 내 남오세티야 분쟁의 역사적 배경과 향후 전망』, (e-Eurasia) vo.7, pp 31-33
- 이동윤, 김영일, 2010,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갈등관리: 아세안(ASEAN)의 지역협력방안을 중심으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14 연구자료 10-50, pp. 20-28
- 장병욱, 2007, 『나-카 분쟁과 아제르-아르메니아 평화과정』, (중동연구) 제 26권 2호, pp. 277-298
- 장병욱, 2008,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원인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pp.301-326
- 현승수, 2012, 『열린 민족, 닫혀진 국가: 소비에트 시기 남카프카스 3국의 형성과 발전』, [2012년 1차 HK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 국내학술회의] - 유라시아의 팽창과 저항 : 제국과 민족주의
- Z.브레진스키, 2003, 『거대한 체스판 - 21세기 미국의 세계 전략과 유라시아』, 김명섭 옮김, 삼인출판
- A.Voronkova, Conflicts in the South Caucasus through the lens of symbolic approaches to nationalist mobilization, Moscow State University, Faculty of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Center for Strategic and Political Studies, (Published in:Naumkin, V. (ed.) *Nepriznannyye Gosudarstva Ushnogo Kavkaza*), p. 2
- Anderson, B.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 London: Verso(윤형숙 역.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 Alexander Murinson, 2004, *The secessions of Abkhazia and Nagorny Karabagh. The roots and patterns of development of post-Soviet micro secessions in Transcaucasia*, Carfax Publishing, (Central Asian Survey, Vol. 23, No. 1, pp. 5-26)

- Anna Matveeva, 2002, *South Caucasus: Nationalism, Conflict and Minorities*,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지도참고)
- Alexander Cooley, 2012, *Great Games, Local Rules: The New Great Power Contest  
in Central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dson Neil, 2008, 'Reimagined Communities'. (International Socialism 117  
(winter), 번역, 정종수, 현대 진보사상 조류: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비평, pp. 279-308
- Enoch Wan and Mark Vanderwerf, 2009,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ethnicity and  
national identity and related missiological studies*, (Published in -  
www.GlobalMissiology.org), Vol 3, No 6, pp. 1-58
- Elliott D.Green, 2006, *Redefining Ethnicity*, Development Studies Institute London  
School of Economics, p. 1-22
- Florian Küchler, 2008,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in Moldova's Transnistria  
Conflict*, ibidem-Verlag
- Janusz Bugajski, 2009, Russia's Pragmatic Reimperialization, Potomac Books, pp. 3-19
- John A.Hall, 1998, *The State of the Nation: Ernest Gellner and the Theory of  
Nation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27
- Matthew Rojansky, 2011, *Prospects for unfreezing Moldova's frozen conflict in  
Transnistri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U.S. Commiss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Washington, D.C.
- Melita Kuburas, 2011, *Ethnic Conflict in Nagorno-Karabakh*, University of Toronto,  
Review of European and Russian Affairs 6 (1), ISSN 1718-4835, pp. 44-54
- Mike Bowker, 2011, *The war in Georgia and the Western response*, Central Asian  
Survey, Vol. 30, No. 2, pp. 197-211
- Namig H.Aliyev, 2009, *International Law Issues in Nagorno-Karabakh Conflict*,  
Publishing House "Universal" Tbilisi
- Paula Garb, 2009, *The view from Abkhazia of South Ossetia Ablaze*, Central Asian  
Survey, Vol. 28, No. 2, p. 238
- Svante E.Cornell, 2001, *Small Nations and Great Powers, A study of ethonopolitical  
conflict in the Caucasus*, Taylor & Francis e-Library
- Timothy Baumann, 2004, *Defining Ethnicity*, The SAA Archaeological Record,  
University of Missouri, pp. 12-14
- Theodor Tudoroiu, 2012, *The European Union, Russia, and the Future of the  
Transnistrian Frozen Conflict*,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26,  
No.1), published by SAGE, pp. 135-161

◀ 인터넷 검색 ▶

www.bbc.co.uk\_BBC NEWS, 2 Oct 2012, Georgia President Mikheil  
Saakashvili admits election loss (검색일: 2012.11.20.)

Article: Janusz Bugajski, 2012, Russia's Georgian Dream,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n Washington DC, Tabula Georgian Issue # 118

강철구, 2008, 민족주의를 보는 관점들,

『강철구의 '세계사 다시 읽기: 민족주의의 근대주의적 해석 비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1128122039&Section=0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1128122039&Section=04)

검색일: 2012.11.25.)

<http://www.harpercollege.edu/mhealy/geg101i/renata/russialecture.htm> (지도참고)

